

벼 병해충 무인헬기 방제 늘린다

전남도가 농가 경영비 절감과 인력 난 해소를 위해 무인헬기를 이용한 벼 병해충 방제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총 20대의 무인헬기를 공급해 벼 재배면적의 7.6%에 해당하는 1만4천㏊를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만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인헬기 8대를 추가 공급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73대가 공급돼 벼 재배면적의 1% 수준을 무인헬기로 방제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남지역 무인헬기 보급률은 높은 수준이지만, 전남도는 앞으로 무인헬기 공급을 더

전남도 16억 들여 8대 추가 도입

고령화 농촌 일손 덜고 비용 절감

늘려갈 계획이다.

전남도가 이처럼 무인헬기 방제사업을 확대하고 나선 것은 영농인구의 감소, 고령화 추세 등으로 인해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인력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한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제작업 비용이 일반 방제작업에 비해 낮은 것도 한 요인이다. 무인헬기의 ㏊당 방제비용은 6만원에서 7만5

천원 수준으로 일반방제에 비해 30~40% 정도 낮은 편이다.

전남도는 무인헬기 공급 확대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과 무인헬기 생산자단체·공급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협의회를 갖고 의견교환을 나눴다.

특히 무인헬기 공급업체와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운영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기술, 약제사용, 공동방

제방법,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정보교환과 협력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관련기관은 무인헬기 방제방안 확대추진에 따른 농업인 교육, 병해충 방제 및 친환경약재 방제 매뉴얼을 마련해 체계적인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최근 농업기계화의 발전으로 벼농사의 대부분 작업이 기계로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력의존도가 높고 그 중 특히 농민이 힘들어하는 작업은 병해충 방제작업”이라며 “무인헬기 등을 이용해 농민들이 손쉽고 편리하게 영농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기원기자 cki@

장흥법원·검찰 100년

10월께 사료집 발간

올해로 100년을 맞는 장흥법원·검찰기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새겨진 사료집이 발간된다.

지난 4월 순수 민간차원으로 구성된 장흥지원·지청 10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회장 김희웅)는 ‘장흥법원·검찰 100년 사료집’을 오는 11월 1일 이전에 출간할 예정이다.

사료집은 지난 100년간의 애환이 담긴 법조인들의 재임시 회고담과 재판, 수사기록을 조명, 탐구해 장흥법원·장흥검찰의 역할을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50쪽 분량으로 편집되는 100년 사료집에는 지난 1973년 4월부터 1974년 1월까지 장흥지원장으로 재직한 윤관 전 대법원장과 오세우 광주지법원장을 비롯한 역대 법원계 인사들과 지난 1987년 2월부터 1988년 1월까지 평검사로 재직했던 김준규 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실린다.

또한 지난 1970년대 라디오 방송 드라마(법정야화)로 이어진 ‘강진 갈 갈이’ 사건 등 사법야사 기록들도 생생히 수록될 예정이다.

김석장 100년 사료집 집필 간사는 “지나간 장흥지역 사법역사를 탐구하고 재조명하는 일은 단집된 역사를 복원해야 할 우리의 책무이다 시대적 요구”라며 “좀 더 사실성이 깃든 사료집이 나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자 kykim@



관방제림에 새하얀 옥잠화 만발

26일 담양군 관방제림을 찾은 한 여성은 만발한 옥잠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옥비녀꽃으로 불리는 옥잠화는 천상의

선녀가 지상으로 내려와다가 떨어트린 비녀가 변했다는 전설을 갖고 있다.

〈담양군 제공〉

전남 名茶 세계적 브랜드화 박차

농기원, 美와 공동연구 추진… 연 100억 수출 목표

전남 명차(名茶)를 세계적인 브랜드화 하기 위한 국제 공동연구가 추진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녹차연구소는 26일 “세계적 천연물 연구소인 미국

국제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고품질 한국명차(茶) 원천적인 생산기술 확보를 통해 기능성 명차 제다 기술 보급 및 미국 수출시장을 확보해 매년 100억원 이상 수출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녹차연구소는 한국차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차를 만드는 단계에 따른 기능성분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박민수 원장은 “한국차는 운데 기후의 특성 때문에 차의 품질이 다른 나라보다 우수하다”며 “효능을 극대화시키고, 맛과 품질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차를 생산한다면 고품질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부동산 투자를 런 공인중개사무소

(용봉동 하이마트 옆 옥교 바로 아래)

**매도, 매수 ☎ 011-641-0925
상담화영 ☎ 062)515-4985**

● 추천 금매물건 - 편선부지최적 ●

월출산 국립공원 입구 대지면적 7,665㎡ 가든식당 매매
-식당(연회석 300석 완비 - 피로연, 회갑연, MT최적),
체육시설(수영장, 족구장), 농장(멧돼지, 오리, 토종닭),
단란주점, 속박업 - 현 성업 중, 모든시설 허가필
-매매가 3.3㎡당 32만원-

**■ 고시텔매매 ■ (금년 5월 준공, 최신시설, 풀옵션)
대 282㎡ / 건 560㎡ 룸 52실(룸 당 월 23만원)
전대 후문 건너 체육공원 인근 - 매 8억 5천**

임야

▶ 16,925㎡(계획관리지역) - 나주 남평(중흥스파랜드 입구)
- 매 3.3㎡당 8만5천원

대지

▶ 683㎡(제 3종 일반 주거지역) - 남구 진월동(광주대 인근)

- 매 11억

▶ 914㎡- 용봉학지지구 현대 3차 앞 - 매 3.3㎡당 300만원

상가주택

▶ 대 498㎡/건 1487㎡(6층건물)-오차동 아파트단지 입구

- 매 17억

※ 시원모집 - 상가 중개, 경매컨설팅 하실분 모십니다.

대보빌딩 임대

★ 광주 최고 상권의 中心 ★

[동부경찰서~전남여고 후문 사이]

- 최고시설의 신축 건물(지상 6층, 지하 1층)
- 성인 학원(외국어/공무원/일반학원) 밀집지역
- 최상의 상업 지역(아시아문화전당 입구)
- 지하철 역세권 [아시아문화전당역(구.도청역)]
- 편리한 주차 공간 (20대 동시 주차 가능)
- 최신 개별냉난방 및 내부인테리어 시설 완비

■ 임대면적 : 총별 167평 (분할임대 가능)

■ 용도

- 1층 : 패스트푸드, 일반 매장, 당구장
(※ 1층 일부 편의점, 학원상담실 입주 원료)
- 3층, 4층 : 학원, 독서실, 일반 사무실
(※ 학원, 정독서실 시설 원비)
- 2층/5층/6층, 입주 원료(학원, 독서실)

임대문의 062)234-1112

금산공인중개사

T.881-5888 H.011-601-5354

(금호동 새롬주 역너, 순천한로센)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용지(C1지역)매매

위 치

상무병원 롯데마트근처편

삼성화재빌딩 옆(4면 광로변)

대 지

약250㎡, 가격 협의결정

•근린시설, APT신축, 병원, 일반상가, 기타 중심

•최고의 교통접근(광주

시청 접근성과 5.18 광로변)

•광주최고의 상권, 최고

의 입지 상업지역

•현재 10층 신축건물 앞

24시간 상담
기다리겠습니다.

군 기상관측소 설립 협약 체결

2009. 8. 25(화)

강진에 기상관측소 설립

광주기상청 - 郡 내년 1월 개소 협약

강진에 국지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상관측소를 만들기로 했다.

강진군은 지난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지방기상청과 ‘강진군 기상관측소’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강진군은 전남 수산기술사업소 강진지소 내에 관측시설을 1억원 투자해 오는 10월까지 설치하고, 11~12월에는 예비관측을 시작으로 내년 1월께 기상관측소를 개소할 계획이다.

또한 강진군은 기상관측소 개소되면 운영과 유지 관리 및 관측환경 조성, 기상관측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기상청은 관측소 설치에 따른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공부가 즐거워지는 습관’

21세기장성아카데미 특강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특강이 열린다.

장성군은 27일 오후 4시 군청 아카데미홀에서 남미영 한국독서교육개발원 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공부가 즐거워지는 습관 아침도서 10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독서를 통한 상상력과 창조력을 기르고 학습에 대한 열의를 높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1995년 9월 첫 강의를 시작한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14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운영해 온 결과 633회를 맞이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한국농어촌공 함평지사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지사장 이재현)는 최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갖고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함평지사는 관내 농업기반시설물 내에서 물놀이, 수영, 낚시 등을 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선도 및 계도해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농업기반 시설물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현 지사장은 “저수지나 취업 보 등을 수심이 깊어 위험하다”고 밝혔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나주 ‘산포 어머니 자율방범대’ 발대식

학교 폭력 예방 등 치안활동

나주경찰서(서장 김원국) 남평지구대는 최근 나주시 산포면 복지회관에서 어머니 자율방범대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포 어머니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지역 사회안정화에 기여하는 학교폭력과 아동대상 범죄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치안에 적극 협력하고

자 조직됐다.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앞으로 경찰과 협동으로 학교주변 폭력예방 순찰 및 등-하고길 교통보조, 청소년 선도 캠페인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학교폭력과 아동대상 범죄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치안에 적극 협력하고

자 조직됐다.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학교폭력과 아동대상 범죄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치안에 적극 협력하고

자 조직됐다.